

## 지원대상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으뜸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지원 육성하고 있는 체신부는 이미 밝혀진대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련 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백억원이 지원되는데 협회는 지원대상 업체의 자금소요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 한다. <편집자註>

조사대상 : 컴퓨터, 통신, 전산, 응용, 부품 관련 중소기업 140개사  
 조사기간 : 88년 2월 5일~20일

연구 개발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들의 올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금액은 늘어났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엇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소요 규모도 연구 개발 투자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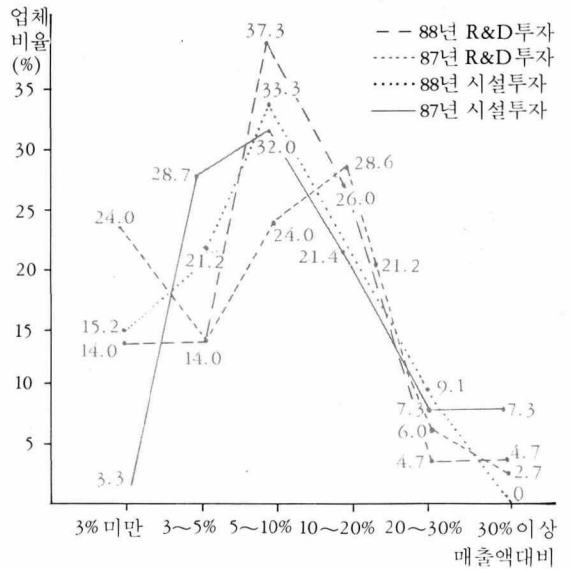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에 있는 정책자금은 공업발전기금이 가장 많으며, 지원받고 있는 자금의 단위당 규모는 2억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책자금을 이용하려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담보 문제이며, 정책자금의 담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액면에서의 시설투자는 향상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업계가 올해 시행할 연구 개발 투자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체의 65.4%를 차지, 지난해의 57.3%에 비해 8.1%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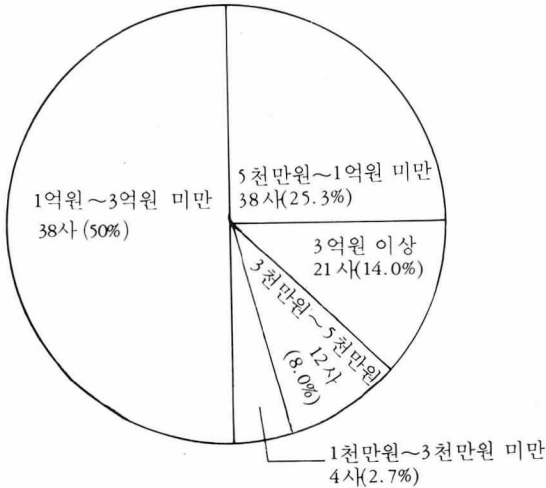
3억원 이상의 투자도 올해는 11.3%나 되며, 지난해 12.7%에 이르던 1천만원 미만의 투자는 전혀 없어 투자 규모 단위의 고액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매출액 대비 시설투자비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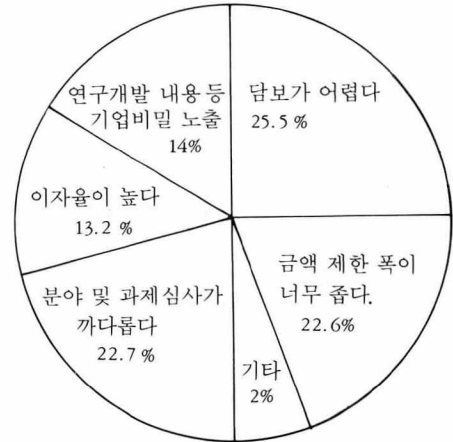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는 5% 미만이 28%로 지난해 38%에 비해 10% 감소된 반면 5% 이상 20% 미만은 63.3%로 10.7% 증가했다. 그러나 20% 이상 투자 하겠다는 업체는 지난해 9.4%에서 8.7%로 약간 낮아졌다. 특히 매출액의 30% 이상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4.7%에서 2.7%로 줄어들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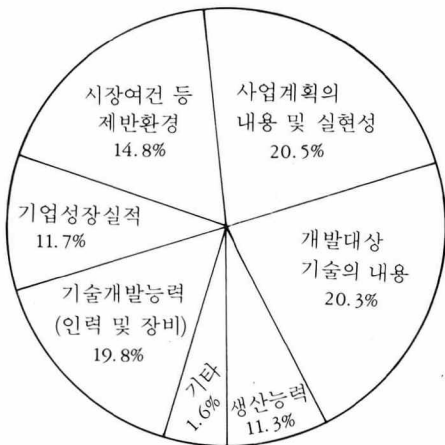
〈그림 2〉 88소요자금 중 정책자금 희망금액



〈그림 3〉 정책자금 이용상 문제점



〈그림 4〉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기준의 중요도



중 1억원 미만도 36.4%로 업체들이 희망하는 양에 비해 실시 지원금액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상 업체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조건으로는 담보제공과 분야 및 과제심사, 금액 제한 폭의 협소 등을 우선하여 지적했는데 각각 25.5%, 22.7%, 22.6%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이자율이 높다」 13.2%, 기타 요인이 2%를 지적했고, 특히 연구 개발 내용 등의 기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비중이 14%나 되는 것도 이채롭다. (그림3 참조)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항들의 중요도는 사업계획의 내용 및 실현성(20.5%), 개발대상 기술의 내용(20.3%), 기술개발 능력(19.8%), 시장여건 등 제반여건(14.8%), 기업성장실적(11.7%), 생산능력(11.3%), 기타(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 참조)

이같은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희망하는 정책 자금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5.3%, 3억원 이상이 14%, 5천만원 미만이 10.7% 순이다. 그리고 3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비중도 14%에 이른다. (그림 2참조)

그러나 이러한 업체의 요구는 실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의 단위량 한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정책자금의 건당 규모는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표 1〉 담보방법

(단위: %)

종 류	희 망	이용중
재 산	21.3	27.3
신용보증기금	78.7	72.7
기 타	—	—

● 조사대상업체 기초자료분석

〈표 2〉 금액대비 시설투자

(단위 : %)

투 자 액	88년(예정)	87년
투자없음	3.3	3.3
1천만원 미만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6.7	34.7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0	24.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3.3	14.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3.3	10.0
3억원 이상	13.4	14.0

〈표 3〉 매출계획 규모별 분류(수출포함)

매 출 계 획 규 모	업 체 수	
	88년(예상)	87년
1억원 미만	—	21사(14.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3사(22.0%)	54사(36.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4사(22.7%)	25사(16.7%)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8사(38.7%)	42사(28.0%)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21사(14.0%)	8사( 5.3%)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4사( 2.6%)	—
5백억원 이상	—	—

〈표 4〉 매출규모 중 수출부문 비중별 분류

비 율	업 체 수	
	88년(예상)	87년
0%	83사(55.3%)	121사(80.7%)
10% 미만	21사(14.0%)	8사( 5.2%)
10% 이상 30% 미만	25사(16.7%)	13사( 8.7%)
30% 이상 50% 미만	17사(11.3%)	4사( 2.7%)
50% 이상 100% 미만	—	—
100%	4사( 2.7%)	4사( 2.7%)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담보제공의 경우 이제까지는 재산담보 27.3%, 신용보증기금 72.7%를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담보를 하겠다는 응답이 21.31%로 줄고, 대신 신용보증기금 활용을 하겠다는 응답이 78.7%로 5%가 늘어 이번 조사에서

주로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에 관련 중소기업들이 담보 확보에 부심하고 있음을 표출시켰다. 〈표 1 참조〉

금액면으로 본 시설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커졌는데 올해 1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에 이르러 지난해의 24% 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표 5〉 종업원 인원별 분류

종업원수	업체수
10명 미만	25사(16.7%)
10명 이상 30명 미만	54사(36.0%)
30명 이상 50명 미만	25사(16.7%)
50명 이상 100명 미만	29사(19.3%)
100명 이상	17사(11.3%)

〈표 6〉 자본금 규모별 분류

자본금규모	업체수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8사( 5.6%)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사( 2.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1사(47.3%)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3사(22.0%)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사( 8.7%)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사( 5.3%)
5억원 이상	13사( 8.7%)

〈표 7〉 창립연도별 분류

창립연도	업체수
1979년 이전	13사( 8.7%)
1980년-1982년	33사(22.0%)
1983년-1985년	75사(50.0%)
1986년 이후	29사(19.3%)

그러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지난해의 58.7%에서 42% 감소된 16.7%를 나타내 저액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참조〉

또한 시설투자를 매출액에 대비하면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총매출액의 5% 이상 10% 미만을 올해 시설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전체의 33.3%로서 가장 많고, 3% 이상 5% 미만과 10% 이상 20% 미만이 각각 21.2%, 3% 미만이 15.2

%, 20% 이상 30% 미만이 9.1%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와는 차이가 큰데 지난해는 고액 투자가 더 많았다. 3% 이상 20% 미만이 올해보다 7.6% 많았고, 3% 미만이 11.9% 적었다.

올해는 전혀 없는 30% 이상의 투자가 지난해는 7.3%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자본금 규모는 2억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77.6%에 이르며, 종업원수는 1백명이 못되는 곳이 대다수다. ■